

회원사 동정



인도에 전선용 銅 롯드제조 합작회사 설립

1. 개요

- 1) 회사명 : - (뉴델리근교 하리아나주)
- 2) 자본금 : US\$5,000,000

출자비율 : Local	Foreign
DELTON CABLE 15%	대한전선 36%
하리아나주 정부 11%	Tomen 15%
일반공모 23%	
49%	51%
- 3) 생산품목 : Copper Wire Rod 8mm DIA(동황인선)
- 4) 생산설비 : Southwire(USA) 연속주조압연기
- 5) 생산능력 : 40,000Ton/year
- 6) 공장부지 : DELTON사 소유의 케이블 공장(뉴델리 근교 하리아나주)에 인접하는 동사 소유의 토지 40,000㎡
- 7) 임원 : 대한전선 4명 DELTON 2명 TOMEN 2명
주 정부 2명 기타 2명

2. 내용

대한전선은 인도에 전선용 銅 ROD.의 생산을 위한 합작 종합상사인 주)도멘, 인도의 전선메이커인 델톤케이블사 및 인도 하리아나 주정부 등과 3개국 합자계약서에 조인

한국기업이 한·일 공동으로 인도에 합작회사를 설립 하는것은 처음이며 도멘은 이미 인도네시아(TMS), 말레이시아(ALPHA), 카작크스탄(KAZKAT)에 銅 ROD. 제조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하

고 있고, 인도 진출은 4번째이며 비철금속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.

본 합작회사의 총사업비는 약 1,500만불인 바 자본금은 500만불(1억 7천만루피)로 출자비율은 대한전선 36% 일본도멘사 15%로 외국인 51%이며, 인도측으론 델톤케이블사 15%, 하리아나 주정부 11% 등 49%이다.

합작회사는 뉴델리 근교인 하리아나주의 델톤케이블사 보유부지 40,000㎡에 건설되며 미국 Southwire사의 동 연속주조 압연설비를 도입 연간 약 40,000톤의 전선용 롯드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.

인도는 1991년 나리시마 라오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유주의 경제로의 변환을 도모하여, 외자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자비율 51%, 과세우대정책, 외자송금규제완화 등 대폭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전력, 통신산업을 중점육성산업으로 채택, 전선의 생산규모 확대 및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어 전선재료인 동황인선의 수요증대가 예측되고 있다.

과거 20여년 전부터 인도에 통신케이블, 銅 롯드(ROD.)등을 수출하고 있는 당사는 이번 합작회사 설립으로 銅 롯드를 현지에서 생산공급하는 체제를 이룩하고 있다.